

Portfolio

‘나는 내면의 감정을 드러낸다.’

나는 나의 내면을 탐구하고, 내면의 다채로운 감정들을 그린다.

그 과정에서 숨겨진 감정들을 발견하기도 한다.

나는 그림을 보는 이들이 그림에 머무르길 바란다.

세밀하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나의 다채로운 감정들을 함께 느끼며, 그림 안에서 치유받기를 바란다.

이는 나 자신을 찾고,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다.

나에게 회화는 단순한 재현이 아니다. 자연의 흐름을 관찰하고 일상 속에서 지나쳐 온 순간들을 다시 포착하고 되새기며,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일이다.

감각과 기억을 따라 시간의 흐름과 변화하는 순간들을 화면에 담아낸다.

색감과 질감은 감정을 더 깊이 있게 전달하는 요소이다. 화면에 스며든 색과 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층위를 만들어내며, 보는 이가 그 감정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한다.

익숙하면서도 모호한 공간을 통해 보는 이들이 각자의 기억과 감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다.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들, 사라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흔적들을 기록한다. 나는 그 순간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감각으로 남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.

회화는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자, 감정을 건네는 하나의 방식이다. 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마음에 머무는 장면으로 남기를 바란다.



더 큰 빛으로, 2024, oil on linen, 60×180c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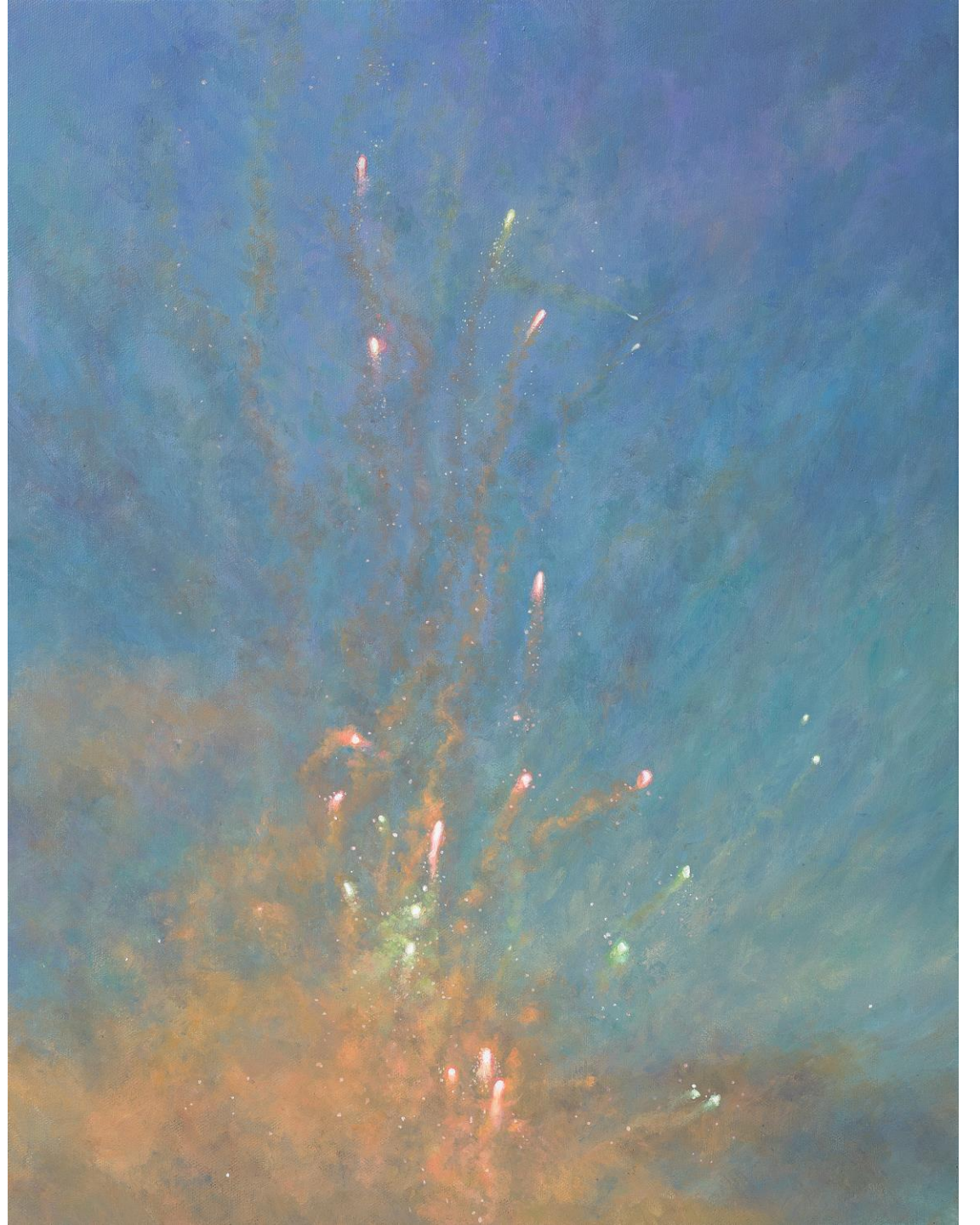


흐어진 순간들
2024
oil on linen
65.1×90.9cm



번지는 순간들
2024
oil on linen
65.1×90.9cm

작은 빛으로도 II
2024
oil on linen
72.7x53.0cm





물드는 순간들

2024

oil on linen

60.6×72.7c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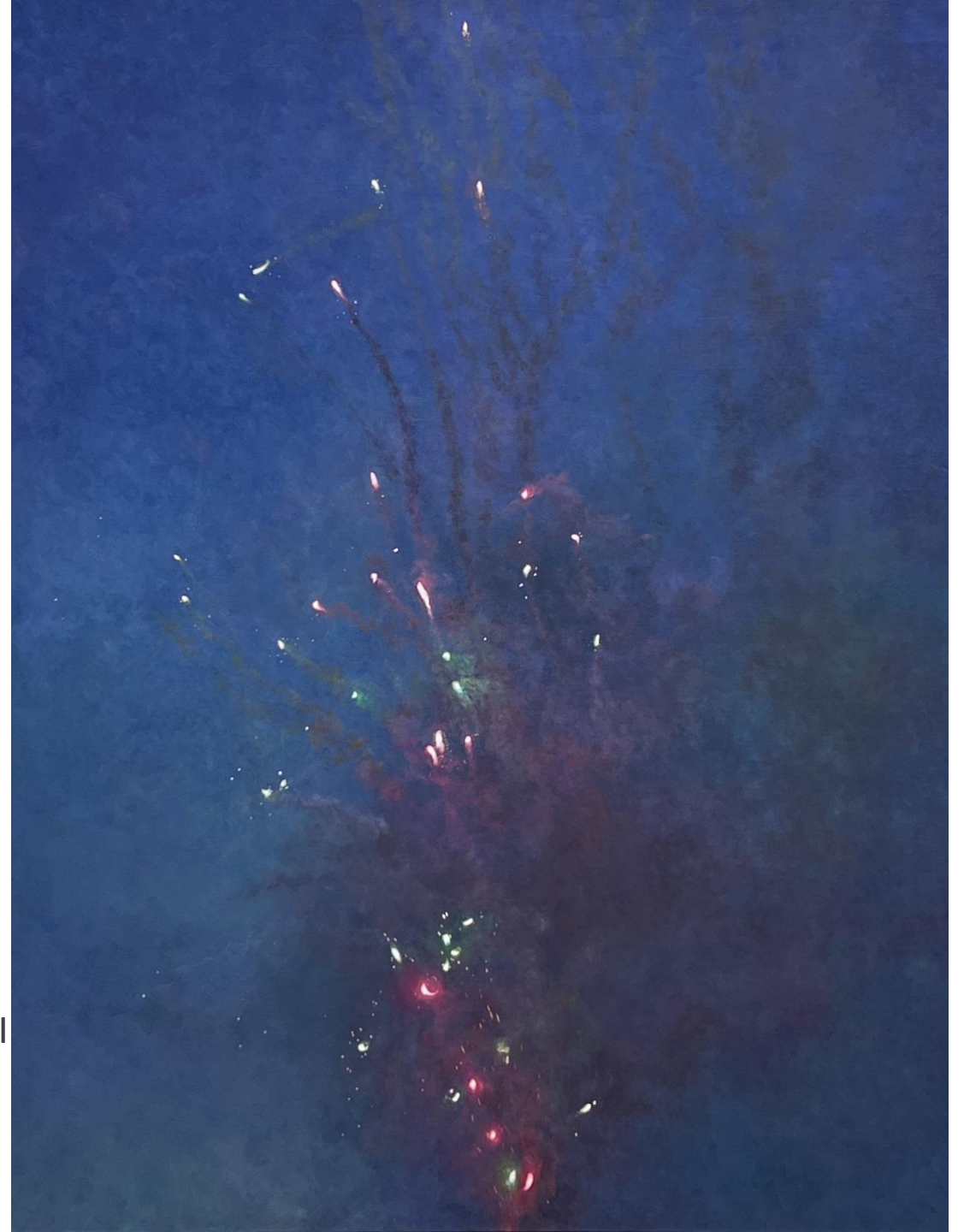


작은 빛으로도 I
2024
oil on linen
65.1×90.9cm



다시 피어오르는
2025
oil on linen
65.1×90.9cm

작은 빛으로도II
2025
oil on linen
116.8×91.0c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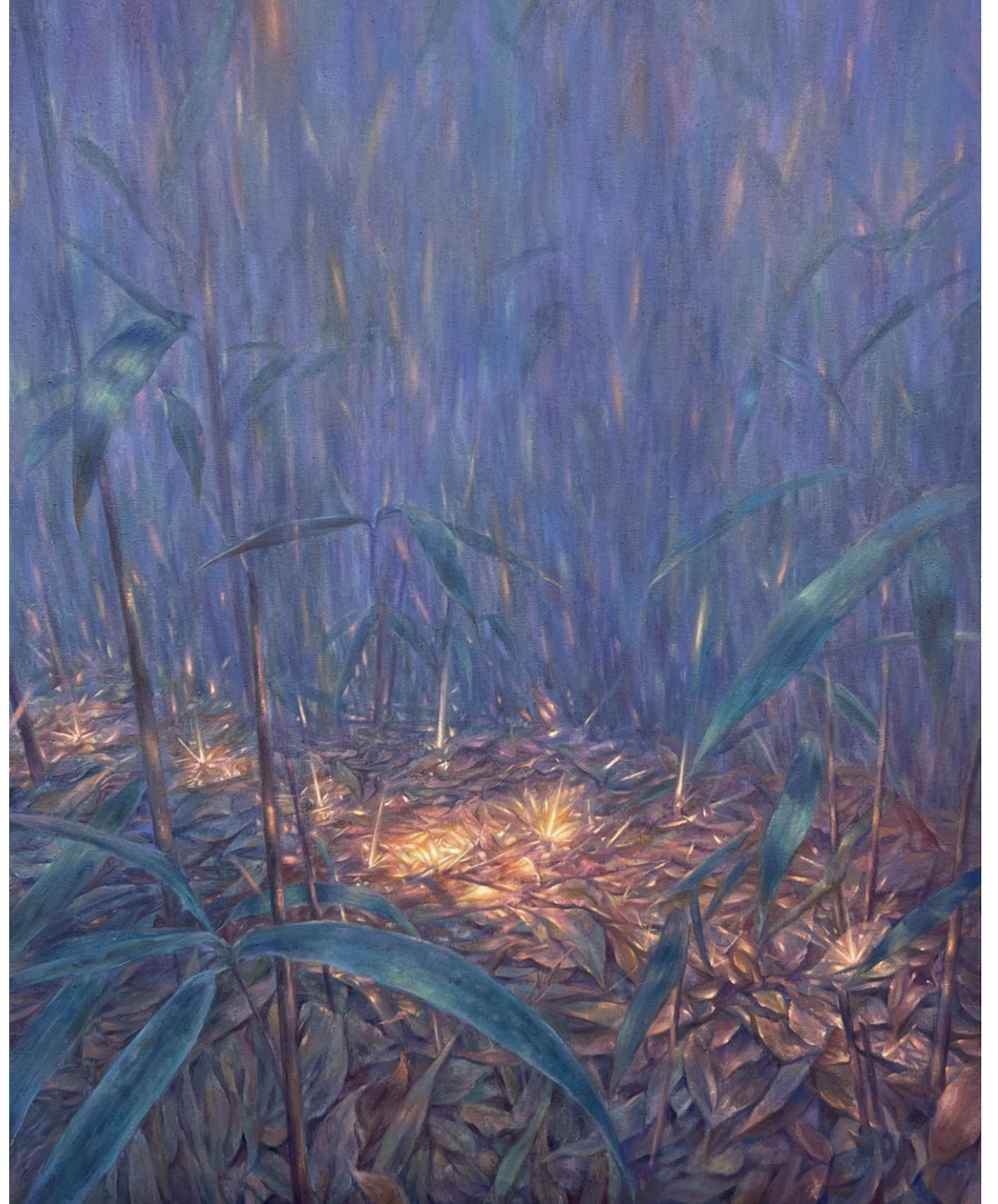
‘스쳐가는 순간 속 여운들’

우리가 살면서 쉽게 지나친 자연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. 나는 그 순간을 관찰해 깊은 인상이나 기억을 남긴 장면들을 기록한다.

나에게 놓치기 쉬운 시간은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지기 전이다. 낮도 밤도 아닌, 새벽이나 노을의 어두운 시간 속 풍경을 모호한 색감으로 표현해 정확히 어떤 시간인지 분간이 잘 안 되도록 보이고 싶다. 잠시 멈춰서 이 모호한 시간의 풍경을 보면 같은 장소여도 시간의 흐름이나 감정에 따라 느낌과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진다.

이 순간들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늘 변화하면서도 항상 우리 곁에 묵묵하게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하고자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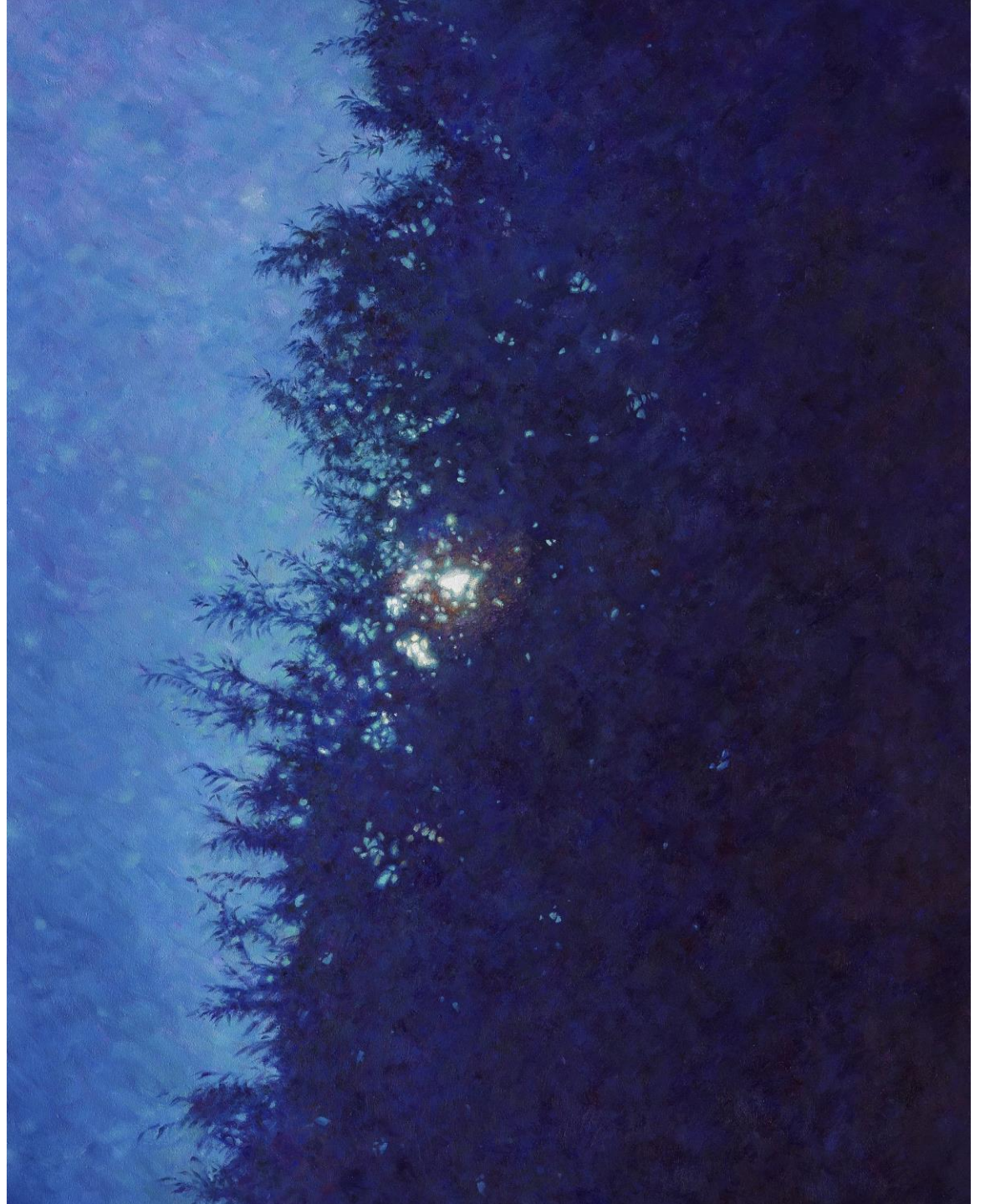
여전히 흐르던
2025
oil on linen
90.9×65.1c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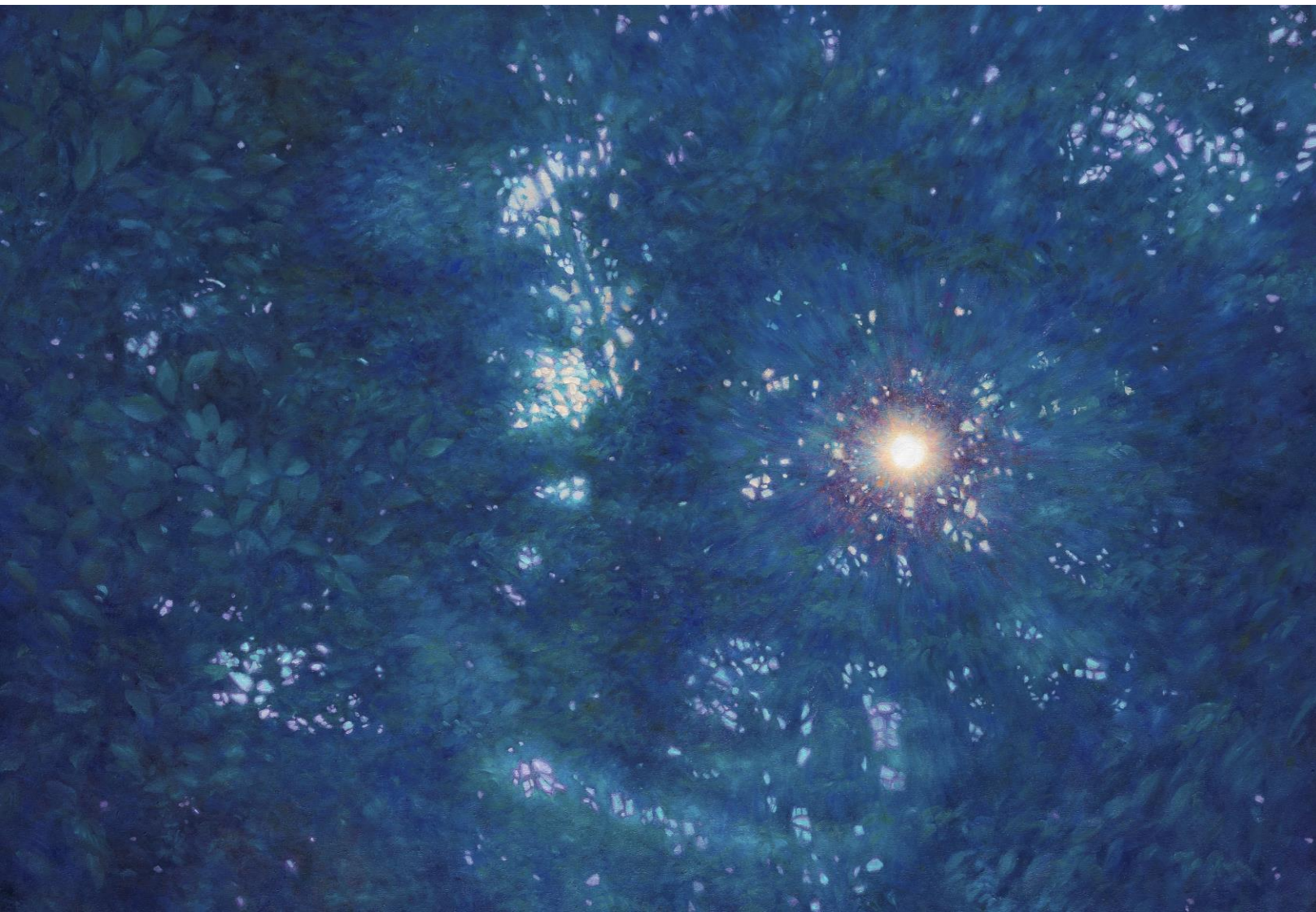




여전히 흐르던 II
2025
oil on linen
80.3×116.8, cm

함께 빛날 시간 I
2024
oil on linen
90.9×72.7cm





작은 빛들이 모이면
2024
oil on linen
80.3×116.8cm



바람 속에서 흐르던

2024

oil on linen

65.1×90.9cm

아직 남은 빛들 I
2024
oil on linen
90.9×72.7c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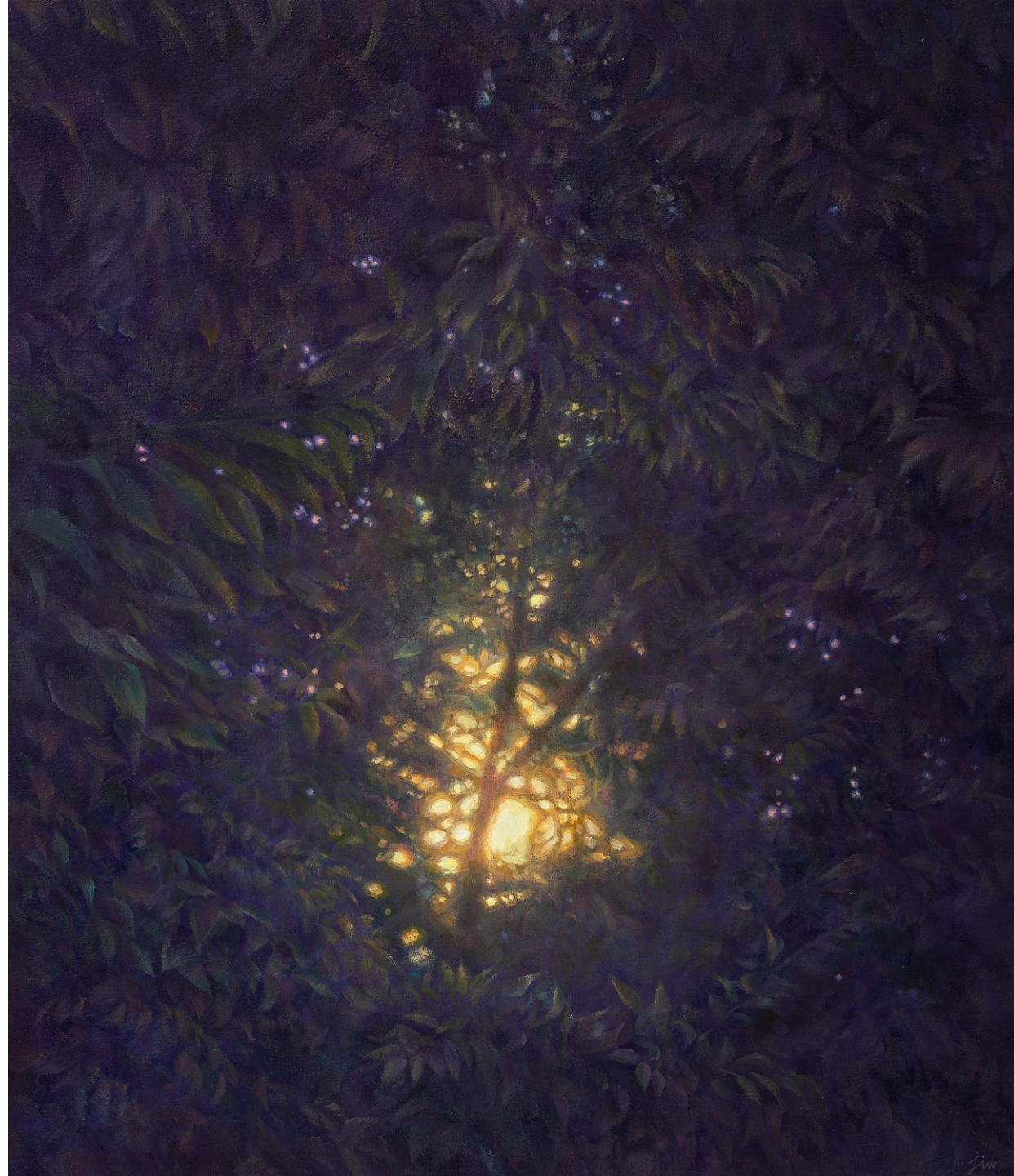


어떤 길을 가더라도
2024
oil on linen
80.3×116.8cm

함께 빛날 시간 II
2024
oil on linen
72.7x60.6cm



여전히 타오르던 |
2024
oil on linen
53.0×45.5cm



여전히 타오르던 II
2024
oil on linen
90.9×65.1c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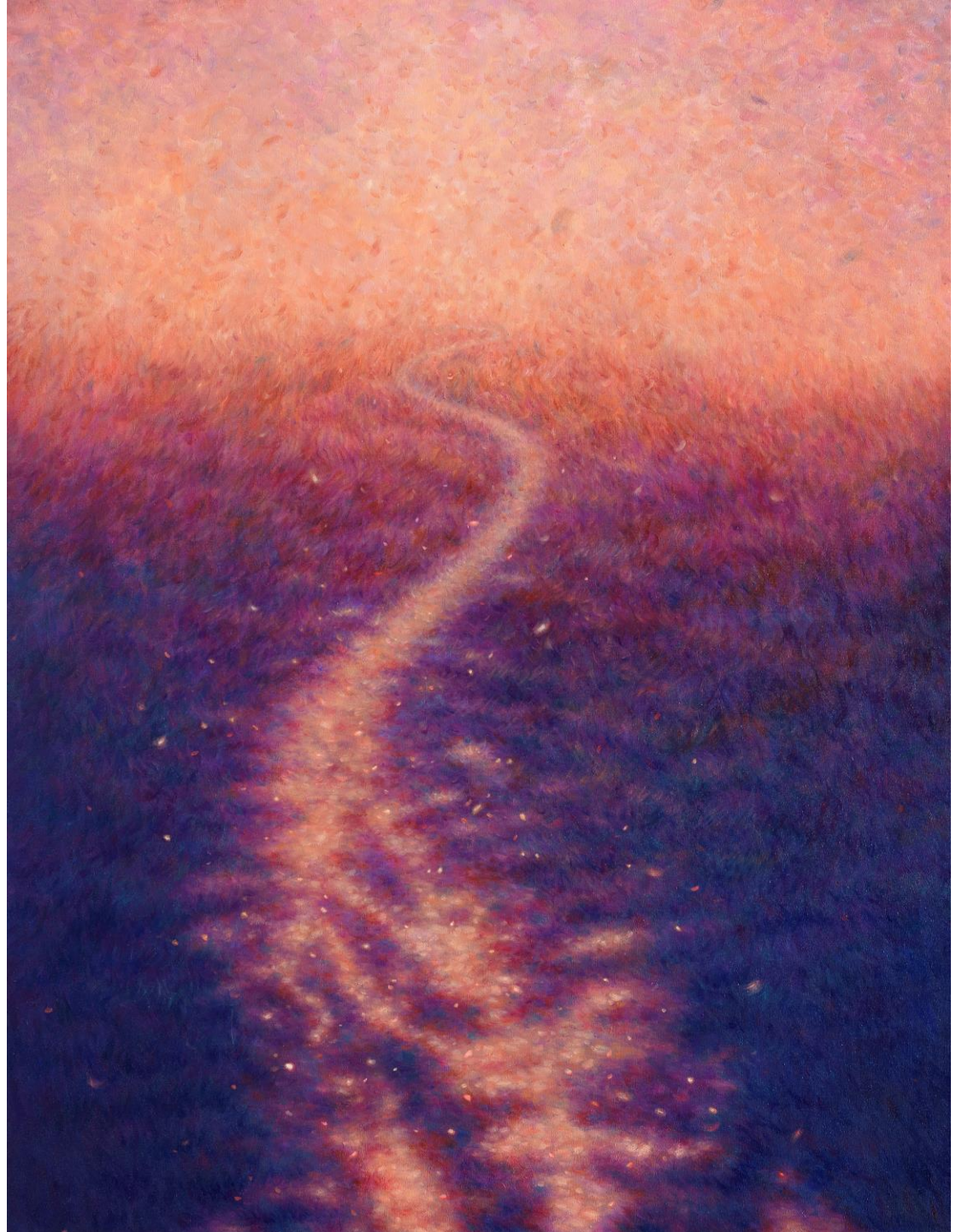
지지않는 빛들
2024
oil on linen
116.8×91.0cm



아직 남은 빛들 II
2024
oil on linen
90.9×72.7cm



발길 닿는 곳마다
2024
oil on linen
116.8×80.3cm



손지원 Son, Ji Won/ 孫智圓

2019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학과 서양화전공 졸업

1996.3.30

Mobile : 010-7754-9984

E-mail : sjw9984@naver.com

개인전

2024

순간의 빛일지라도 (아크 갤러리, 광주)

단체전

2025

내일의 컬렉션, (산수아트스페이스, 광주, 대한민국)

재현을 밀어내는 감각, (갤러리 혜음, 광주, 대한민국)

월출산 화(畵)씨뿌리다6 '보이는 것과 볼 수 있는 것' (월출산 갤러리, 영암)

2024

무등산 예술산책 (국윤미술관, 광주)

그 작품 나도 좋아해 (광주미술관, 광주)

10의n승&뽕뽕브릿지 교류전시 무브먼트 24:첫 날(剡) (10의n승, 서울)

한중청년현대예술교류전 8000도 (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F 갤러리 화해)

무등유토피아 (국윤미술관, 광주)

녹음방초 (보성군립 백민미술관, 보성)

무경계:변이 GIYAF Gbound (갤러리 Hyun, 광주)

2024광주 청년미술제-섹션1 발칙한 상상 (갤러리총장 22, 광주)

2024광주 청년미술제 본 전시 (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, 광주)

2023

순천에코아트페어 (E.A.T,순천시반려동물문화센터, 순천)

국제블루아트페어 (웨스틴조선 부산 호텔6층, 부산)

<아트로 놀자!>보고, 먹고 사는 광양아트마켓 (인서리공원, 광양)

2022

김넷과 광주·대구 문화교류전 '같이&가치'(상무지구 영무파라드시티, 광주)

예술산책4 작가미술장터 '아트슈퍼마켓'(해동문화예술촌, 담양)

2022 광산아트마켓&아트광주 프리뷰展 (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, 광주)

기후정의와 모두의 예술展 (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, 브레디관, 헨리관, 광주)

2021

미로마켓 온앤오프 <크고 아름다운 깊이> (관선재갤러리,광주)

청년예술인지원센터 입주작가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<네가 될 지도>(광주권 내 5개 학교, 광주)

아트키카 3rd <아이엠 그라운드(I Am Ground)>(주안미술관, 광주)

2020

예술산책2: 예술이 공존하는 세계 (해동문화예술촌, 담양)

5.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전시 '뽕.뽕뽕' (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, 광주)

2020다르기展 '올타리-그 안에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'(조선대미술관, 광주)

2019

청년작가의 12월展 (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 1층, 광주)

빛나는 거리, 예술로 공동'청춘창작소결과발표전'(무등갤러리, 광주)

청년작가그룹 단체전 'OTRO' (야크갤러리, 광주)

광주광역시 신진유망 예술가 작품발표공간지원展_ 'Volume Up' (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홀, 광주)

대인예술시장 '폴장에서 잠시휴가' (한평갤러리, 광주)

광주 청년작가전 '한 여름 밤의 열정' (BHC갤러리, 광주)

청년작가 단체전, 'OTRO2/5' (소암미술관, 광주)

레지던시

2024 국윤미술관 레지던스 홍림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

2020~2021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입주작가

2019 예술로 공동 청춘창작소 입주작가

수상경력

제 16회 조선대학교 백학미술인상 수상

제 30회 배동신어등미술제 입선

제 19회 전국바다사생대전 특별상

제 21회 전국바다사생대전 특선

제 32회 청소년예방선도 원진서화백일장 동상

제 30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입선

제 53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특선